

## 제7회 노인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자원봉사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회 노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남다른 봉사과 헌신으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릴 적에 저는 동네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버지께서 일흔여섯의 나이로 제가 고시 합격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저의 어머니는 아흔셋까지 사시다가 19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나 저나 아버지 어머니께 잘 순종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 것도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이라는 마을 어른들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국은 100배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누가 했느냐고 물으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활기차고 눈부시게 자기의 뜻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만드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존경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큰소리 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면 그 밑천 또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논 팔고 소 팔고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공부시킨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우리 한국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수한 자질과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의지, 여러분의 희생 속에 쌓아올린 실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고령화 사회의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0년, 30년 뒤 우리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부탁치고 어찌면 정상적 운영마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희망적인 계획들도 좌절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열정을 지닌 사람이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할 때에도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조금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드린 노인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결코 빈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정책 중의 절반 정도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능력에 따라 오래도록 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좀더 보람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일과 같은 것은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고민스러운 문제는 호주머니에 용돈이 없어서 자식들 눈치보기가 힘들고 소일거리가 없어 심심하고 몸 아픈 일 아납니까? 앞으로의 문제인 고령사회 대책도 차질 없이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용돈 한푼이라도 더 드리도록 하고, 심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20%를 노인요양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르신 여러분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도록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생긴 예산을 또 다른 노인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의 노인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 여러모로 봉사하고 계신 사회단체 지도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잘 하라'고 채찍질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채찍질은 언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빨리 안 되느냐', '기대에 못미친다'고 너무 많이 때리지는 마시고 일 잘할 만큼 살금살금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